



각양각색의 표정

F1 결승전이 열린 1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을 찾은 국내외 관중들의 다채로운 표정. 페이스 페인팅을 한 여성들과 망원경으로 심각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외국 아동 팬은 물론 경주 장면을 찍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는 부자에 이르기까지 관중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엔진 굉음 열광·환호... '스피드 전쟁'에 쏠린 눈



선두 경쟁 치열

F1 머신들이 결승 출발과 함께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화려한 개막 행사

1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 앞서 개막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신들 열띤 취재

10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린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내외신 사진기자들이 스탠드에서 경주 장면을 촬영하는 등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쁘게 봐주세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16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F1 grids 걸(레이싱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F1코리아 그랑프리 이모저모

F1 머신은 달리는 1억달러 광고판

○F1 머신은 그야말로 달리는 광고판이다. 대당 100억원에 달하는 F1 머신에는 머신 가격의 10배가 넘는 1억달러(한화 약 1150억원) 이상의 광고비도 배워 있다. 머신에는 보통 9개 정도의 광고판이 부착되는데 광고액은 위치에 따라 400만달러에서 최고 4000만달러에 이른다.

광고비가 가장 비싼 부분은 운전석 옆쪽의 사이드포드. 이곳에 광고를 하려면 4000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운전석 뒤 엔진커버 부위는 3500만달러의 비용이 든다. 엔진커버 뒤쪽의 뒷날개(리어 윙)는 1600만달러, 엔진 옆쪽의 터브사이드와 앞날개 부위의 프론트 플레이트는 각 1200만달러, 뒷날개 부위의 리어 플레이트는 600만달러, 운전석 내부는 400만달러, 드라이버가 머신에 올라탈 때 비추는 플로어는 400만달러 등이다. F1에는 한 시즌 동안 3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팀 운영이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지출하는 각종 비용의 합계가 3조원을 훌쩍 넘는다.

체커플래거는 LG전자 사장

○16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제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에게 '체커기'를 흔든 '체커플래거'는 LG전자 글로벌마케팅 최고책임자인 강신익 사장이었다. 흰색과 검정색이 체크무늬를 이룬 체커기는 모든 경기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다. F1조직위는 예초 '2011 한국 DDGT 챔피언십'을 후원한 조현식 한국타이어 사장을 '체커플래거'로 선정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강 사장으로 교체했다. '체커플래거' 선정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조 사장이 '개인적 사정'을 들어 고사했다는 게 조직위의 해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조 사장이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들어 인척 지원 개연성이 제기되는 등 여수선한 상황에서 대회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09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F1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2013년까지 5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다. 강 사장은 "지난 3년간 F1 공식 후원으로 연간 수천만달러 이상의 광고 효

과를 보고 있다"며 "이 대회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품 판매 부스 관람객 북적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장 내에 있는 기념품 판매 부스들이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활짝웃음을 지었다. F1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공식기념품인 기념셔츠와 점퍼를 비롯한 옷가지, 모자, 각종 F1 및 참가팀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기념품점은 레드불 매장. 2010시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레드불 팀의 레이서 페텔의 인기를 반영하듯 레드불 기념품점은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일부 품목은 14일 판매를 시작한 자마자 품절 현상을 보였고, 15일에는 판매 하루 만에 전체 품목의 가격이 10~30% 오르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한글 문양 레이싱 슈트 소개

○'한글 문양이 새겨진 레이싱 슈트'가 전세계 6억명의 F1 팬들 앞에 소개됐다. 맥라렌팀의 루이스 해밀턴과 젠슨 버튼은 지난 15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에서 한글 문양이 들어간 레이싱 슈트를 입고 경기를 펼쳤다. F1 레이싱 맥라렌 팀의 스폰서인 패션브랜드 휴고 보스가 지난 7월 스폰서십 30주년을 기념해 경기가 열리는 19개국에서 F1 파이널 경기 때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 디자인을 공모했고, 한국 공모전에서는 김효진(여·20)씨가 디자인한 작품이 1위로 선정됐다. 레이싱 슈트에는 한글과 호랑이 문양이 새겨졌으며, 김씨의 작품은 오는 11월 파이널 경기 전까지 다른 참가국들 공모전 1위 작품들과 경쟁하게 된다. 한편, 한글 슈트를 입은 해밀턴은 예선전에서 1분35초820로 1위를 기록하며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